

편집의 글 (editorial review)

---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II)

코로나-19 발생과 전개의 분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Reading Socio-Space of COVID-19 (II):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COVID-19 and Prospects for  
Post-COVID-19 Age

정현주\* · 황진태\*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12월 12일 기준, 한국사회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한복판으로 진입했다. 지난 가을호에 이어서 이번 겨울호 특집호에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현재의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기여할 주목할만한 논문들이 실렸다. 정상 상황과는 달리 연구자들은 차분히 분석해야 할 대상과의 거리두기가 쉽지 않았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사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코로나 블루’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논문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과학이든 인문사회과학이든 각자의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세상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특집호에는 총 5편의 논문이 실렸다. 먼저, 최병두의 논문은 코로나 사태에서 대두된 국가의 귀환을 주목하면서 방역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방역과 인권 간의 관계 규명을 시도한다. 팬데믹 사태에서 국가의 귀환이 전세계적으로 목격되는 와중에 저지는 방역국가에 대한 해외연구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생태안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간들의 생명과 관련된 인

---

\*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jung0072@gmail.com),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dchjt@naver.com)

간안보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비인간들의 생명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사회-생태적 균형의 차원으로 확장된 새로운 안보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김준수 등과 박위준의 논문은 최병두의 연구에서 다룬 두 가지 지점(생명정치, 비인간)과 연관되어 사유의 깊이를 더하였다.

김준수 · 최병애 · 박범순의 공동논문은 본 《공간과 사회》 2018년 28권 1호 특집호로 소개된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의 시각에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인간이 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인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인간의 활동이 증가(도심에서의 야생동물, 식물의 개체수 증가)한 상황은 일면 ‘자연의 번성’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간들을 위하여 유채꽃 축제 공간에 심어진 식물들이 갈아엎어지거나 동물원의 동물들이 코로나로 인해 굶주리다 인간들을 통하여 먹이를 공급받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소위 ‘자연의 번성’은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을 함축하기보다는 자연과 인간 간의 긴밀한 역설적 관계를 환기시킨다. “어떤 비인간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결정은 앞서 최병두가 논의한 생태안보 개념과 인간안보 간의 경계와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박위준은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한국의 방역모델을 분석한다. 저자는 현재의 방역모델을 가능케 한 개별 기술들의 특성과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기술들(스마트 기술, 진단 키트 등)을 작동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가 있으며, 그 근본원리를 ‘인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강압적인 물리적 봉쇄조치 대신에 인간과 사물(혹은 비인간)들의 순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사회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개별 감염자에 대해서는 규율적 격리를 통하여 순환을 뒷받침하는 ‘생명정치’로 읽는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푸코의 생명정치 테제가 봉쇄조치를 취한 다른 서구 국가들에는 맞지 않지만, 한국의 방역모델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잘 들어맞았다는 예외성이다. 이러한 예외성은 보다 보편적인 학술적 논의 및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최병두의 논문에서도 푸코의 생명정치를 다루지만,

최병두는 국가의 방역정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민사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를 감안하고 두 논문을 읽는다면 좀 더 흥미롭게 읽힐 것이다.

이상 세 논문이 거시적 시각과 이론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다음 두 편의 논문은 구체적인 정책 수준(주거와 교육)에서 코로나의 사회-공간들에 대한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후빈의 연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와 임차료 체납으로 인하여 주거상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기와 주거의 관계를 주목하게 된 여론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 주거위기의 본질은 팬데믹 보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기존에 특정 집단(신혼부부, 청년 등)을 호명하는 방식의 임기응변적 주거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적으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 불완전성을 포착한 근로빈곤층의 이중불안을 주목하면서 보편적 주거안정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시효의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환경의 차이가 어떻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학습성취와 놀이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뒷받침할 데이터의 시간대는 짧지만, 기존 계층별 학력격차가 코로나를 통하여 유지, 강화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었다는 사실은 앞서 이후빈의 연구에서처럼 코로나라는 예외적 상황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었던 사회문제들을 강화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역부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재했던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는 귀중한 연구이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서 긴급하게 코로나가 특집호 주제로 결정되고,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번의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두 특집호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들과 이들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